| 산업통상자원부<br>http://www.motie.go.kr | **보 도 자 료**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

**2022년 3월 17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17.(목)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 배포일시 | 2022. 3. 16.(수) | 담당부서 | 한미FTA대책과<br>미주통상과 |
|---|---|---|---|
| 담당과장 | 박성진 과장(044-203-5940)<br>박성준 과장(044-203-5650) | 담 당 자 | 정인경 사무관(044-203-5954)<br>윤경민 사무관(044-203-5652) |

# 한미 통상장관,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현장 첫 동행, "한미FTA의 미래는 공급망 · 경제안보 협력 강화"

**- USTR과 공동으로 美미시간 'SK실트론 CSS' 생산 공장 방문, 한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한미 투자협력 확대 논의 -**

**- 양국 통상장관 회담 개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통상현안 굳건한 한미 공조 강화 -**

**- 미국 외교협회·前백악관 국가경제 위원장·코리아소사이어티 등과 만나 한미 통상 · 경제안보 협력 방향 논의 -**

**- 반도체장비회사 엑셀리스 테크놀로지社 국내 투자확대 결정 -**

1.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이어 3.16(수)~17(목) **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미시간**을 방문하여 **▲'SK실트론CSS' 반도체 생산공장 방문** 및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함

**< SK실트론 공장 방문 (3.16일, 13:00) >**

□ **3.16(수) 13:00**(현지시간) 여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WIAANHPI* 위원과의 조찬에 이어 **미국 미시간州 어번(Auburn)과 베이시티(Bay City)에 위치한 'SK실트론CSS'를 방문**

○ 양국 통상장관은 한미FTA 10주년을 맞아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현장을 함께 점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미래는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서의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 **WIAANHPI**는 아시아계, 하와이계 등 소수계 미국인들에 대한 평등, 정의, 기회 제공 등을 추구하는 백악관 주도 이니셔티브(자문위원회)로 '21.5월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범
** WIAANHPI 내 한국계 위원은 3인이며, 미시간州 거주 한국인은 약 2만6천여명

○ 본 행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상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통상수장이 미국 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향후 한국기업과의 공급망 협력 및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함

**< 행사 개요 >**

- **일시** : '22. 3. 16일(수) 13:00～15:30 (현지시간)
- **장소** : 미국 미시간州 Auburn/Bay City
- **참석자** : 통상교섭본부장,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유정준 SK 부회장 등
- **주요 내용** : SiC 웨이퍼 생산 현장 투어, 산업부-USTR-SK 간담회 등

○ 여 본부장은 특히, 타이 대표가 지난해 LG와 SK간 배터리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양국간 핵심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한 것을 평가하며, 격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하 향후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헬스, 에너지, 원자재, 희귀금속 등 핵심적인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

□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이 2020년 美 DuPont社의 웨이퍼 사업부를 4.5억 불에 인수한 기업으로, 전기차·태양광의 전력 변환 장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SiC(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여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는 **한-미 양국의 경제·산업 성장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對美 투자의 이상적 사례**임

* SiC(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전기 형태 변환 시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전력 반도체의 일종으로, 기존 실리콘 웨이퍼에 비해 전력 변환 손실을 90%까지 감소시키며, 높은 전압·용량을 처리하는 높은 열전도율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전기차 주행거리를 5~10%까지 증가시킴

○ SK실트론은 향후 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3년간 3억 불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50명의 추가적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힘**

* SiC 웨이퍼는 주로 EV 마켓이 큰 미국에 인피니온, ST마이크로 등에 주로 공급되며 향후 SiC 웨이퍼 시장은 2030년 3.6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된 SiC 웨이퍼를 국내 중소기업이 도입하여 전력 반도체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전기차산업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국내 공급망 및 국내 新산업 생태계 성장에도 기여 가능**

* 국내에는 전력 반도체를 일부 생산하는 예스파워테크닉스에 연 200만불 규모로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현대차 등에 공급 예정

※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전문 붙임

**< 한미 통상장관 회담 (3.16일, 18:15** *미국 동부시간) >

□ 공장 방문에 이어 **한미간 교역·투자 현장**인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만난 **양국 통상장관**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함

○ 관련하여,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 FTA 프레임워크**에서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등 신통상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 양국 실장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회의를 상반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한바, 새롭게 부상하는 신통상의제에 대해 한미 통상당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됨

○ 나아가, 최근 **미국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 양측은 10년간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베스트 프랙티스 경험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새로운 통상·경제질서 형성에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IPEF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아울러, 對러 수출통제 및 WTO 등 다자통상 차원의 對러 조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 또한, **한국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촉구함

**2.** 이어 여 본부장은 3.17(목)~3.18(금) **뉴욕을 방문**하여 **▲외교협회(CFR)*·Gary Cohn 前백악관 국가경제 위원장**·코리아소사이어티*** 면담** 등을 통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한미간 통상·경제안보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고, **▲엑셀리스**社를 만나 **국내 투자계획을** 논의함

*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국제정세 이해도 제고 및 국제관계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1921년에 출범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

** 게리 콘(Gary Cohn) IBM 부회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한미 FTA 폐기 방지에 핵심적 역할을 함

*** Korea Society :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57년에 창설된 비영리 단체

**< 美외교협회, 前 백악관 NEC 위원장, 코리아소사이어티 >**

□ 먼저, **여 본부장**은 **미국 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 게리 콘 전 백악관 NEC 위원장**(IBM 부회장) 등을 만나 **한미 경제안보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한국과 미국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극복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양국간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함

○ 특히, 게리 콘 전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FTA 폐기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 한-미 FTA가 **미국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FTA이며, 동북아 국가와의 유일한 FTA라는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기후변화·첨단기술·디지털 등 **신통상 의제들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 또한, 리처드 하스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갈등** 등 글로벌 도전요소들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 측면의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ecity)** 주최 대담에서는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성과**와 **공급망 리스크 완화전략,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함

○ 여한구 본부장은 "견고한 한미 경제·공급망·기술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면, 더욱 **역동적인 인태지역 통상질서 형성** 및 글로벌 도전요소 극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복원 및 국제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 엑셀리스社 국내 투자유치 >**

□ 마지막으로 여 본부장은 美반도체장비 회사인 **엑셀리스(Axcelis Technologies, Inc.) 팀 오레간**(Tim O'regan) **투자총괄을 만나 엑셀리스의 對韓투자 확대 및 신규 고용계획(최대 100명)을 확정함**

<엑셀리스 개요>

o 설립연도: 2000년(에너지솔루션기업 Eaton社로부터 독립, 반도체 제조 전문 단독법인 출범)
o 주요업종: 반도체 제조장비(반도체용 이온 주입 시스템·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제조)
→ 전 세계 32개국 대상 약 U$ 20억 규모 이온 주입기 공급중
o 누적투자신고금액: U$ 21백만('22.3월)
o 국내법인: 엑셀리스코리아주식회사(평택 생산공장)

○ 엑셀리스는 **평택 생산시설에 증액 투자**하여 **반도체 이온주입장비**의 **연간 생산규모를 늘리고,** 지난해 11월 한국에 설립된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AAOC: Axcelis Asia Operation Center)를 통해 아시아 사업 전반을 관장하기로 결정함

○ 또한 한국에 R&D 센터, 시제품 검증 센터(Demo center), 교육훈련 센터(Training center)를 세워 **첨단 반도체장비 제조·개발·인력양성의 핵심 파트너로써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 현재 미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내화물(refractory), 가공(machining), 판금(sheet metal), OEM, 프레임, 코팅 등 10개 이상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국내 공급망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조달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이는 **미시간 SK Siltron CSS의 반도체 소재 생산시설 방문**에 이어, **한미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대책과 정인경사무관(☎044-203-5954), 미주통상과 윤경민 사무관(☎044-203-5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통상교섭본부장 SK실트론 공장방문 축사**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저와 USTR 타이 대표를 초대해주신
SK 유정준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SK실트론 방문은
저의 친우인 타이 대표와 함께하는 첫 로드 트립입니다.
바쁜 일정속에서 시간을 내어
양국의 동맹을 재확인해 준 타이 대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품질 크레프트 맥주의 본고장이자
한국에서 디트로이트 피자로 유명한
Great Late State를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와 타이 대표님은,
한-미 FTA의 지난 10년간 성과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조업의 발생지이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
이곳 미시간州에 있는 SK실리콘 공장이
한미 경제 동맹의 미래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 2. SK실트론 대미투자 의의

이곳 SK실트론은
3가지 분야에서 한-미 FTA가 지난 10년간
지나온 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SK실트론의 투자는 한미 공급망 협력의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미국 자동차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국 자동차 가격 7% 이상 상승

이러한 상황에서 SK실트론의 투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재수입하여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SK실트론의 투자는
미시간州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 최첨단 공장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의 교차점에서
양국이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시간州는 1세기 전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기차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실트론은 GM, Ford 등과 협력하여
미국산 전기차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근거리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접성은
미시간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K실트론은 한-미 FTA를 통한
양국 협력의 산물입니다.

10년 전 한-미 FTA가 발효된 이래로
양국 정부는 규제를 간소화하여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작년 LG-SK간 배터리 분쟁을 성공적으로 중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천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살리고
배터리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신
타이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타이 대표가 이 공급망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세대의 통상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 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년동안 구축한 상호 신뢰를 통해
통상환경의 공정성과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기업 환경의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저와 타이 대표는
SK실트론과 같은 기업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갖춘 통상규범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3. 마무리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SK실트론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며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